

‘익투스 콘서트’ 남가주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다

러빙워십 주최 익투스 콘서트
조혜련 집사, 브라이언 킴
간증 및 찬양 인도

브라이언 킴, 장로님에게 묻다

“전세계에 K 가스펠, 교회를 세우신 외국 선교사가 계셨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비비고 만두가 됐다. 한국과 이민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면 좋겠다. 이 땅에 우리가 있는 이유가 있다. 복음을 한 명에게라도 전하는 이민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돈을 벌 때 주를 위해, 찬양할 때 주를 위해, 교회를 세울 때 주를 위해,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하는 진정한 예수쟁이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고등학교 때 엄마에게 물어봤다. ‘엄마 교회 왜 다녀?’ ‘엄마 왜 찬양해?’ ‘나도 만나고 싶어.’ 엄마는 저에게 그러셨다. ‘교회 가서 장로님에게 물어봐.’ 저는 장로님이란 단어를 몰랐다. 장로님에게 ‘장조림’이라고 불렀다. 장로님에게, ‘how can I know that Jesus is real?’이라고 물었다. 그러자 장로님이 그러셨다. ‘아멘.’ 그런데 저는 그 겨울에 장로님이 모는 밴을 타고 수



조혜련 집사와 찬양 사역자 브라이언 킴이 러빙워십 팀과 함께 남가주 교회에서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간증했다. ©기독일보

련회에 가서,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이 찬양을 듣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지난 10월 4일(토) 오후 6시 30분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 목사)에서는 최근 ‘성경 바람잡이’로 활

발하게 활동하며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조혜련 집사와 브라이언 킴이 러빙워십 팀과 함께 무대에 올라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간증했다.

이 행사의 뿌리는 러빙워십의 비전과 헌신

이번 행사는 문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연합을 도모하는 문화사역 단체 러빙워십(대표 조셉 리 목사)의

기도와, 땀,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조셉 리 목사의 분명한 비전과 방향성, 러빙워십 스태프들의 열정적인 헌신이 이 행사의 뿌리이자 바탕이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믿음을 확인하는 표식인 ‘익투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콘서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선포하며, 세대와 환경을 초월해 함께 예배하기 위해 열렸다. 이 행사를 준비한 러빙워십은, “매 단계마다 준비하는 분야마다 끊임없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쏟아졌다. 하나님 앞에 앞도려 기도하며 돌파하고 또 이겨나가며” 이 문화 행사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성경 바람잡이, 조혜련

조혜련 집사는 남다른 에너지와 텐션, 유머와 재치로 관객의 마음을 쥐었다 폈다했다. 그는 ‘성경 바람잡이가 되라’는 말씀에 순종해, 신학대학에 들어갔고, 2년 전 신학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어머니와 함께 새생명비전교회를 방문했던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주디 한 기자 →2면에서 계속

설교 페스티벌 10/18 나성순복음교회서

남가주 한인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되는 ‘남가주한인 신학대학교 설교 페스티벌’이 오는 10월 18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에서 열린다.

행사는 미주성서화운동본부(공동대표회장 송정명, 한기홍 목사)가 주최 및 주관하며, 이번 설교 주제는 ‘연합을 이루어 나가자’로 분량은 12분(테타사이즈 2-3페이지)이다. 김민선 기자 →3면에서 계속

아프리카 목사, 20만 명 목회자 양성 계획 밝혀

케냐 아프리카 국제대학교 부총장, “복음의 폭발적 성장 대응 위해 목회자 훈련 필요”

아프리카 복음주의 교회의 급격한 성장세 속에서, 케냐의 신학자이자 목회자 넬슨 마칸다(Nelson Makanda) 목사가 향후 5년간 20만 명의 목회자를 훈련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그는 나이로비에 위치한 아프리카국제대학교(Africa International University, AIU)의 부총장

으로, 아프리카 복음주의 운동의 신학적 기반과 현장 훈련을 강화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지난 9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간, 마칸다 목사는 미국의 에이즈 구호 프로그램인 ‘PEPFAR’ (President’s Emergency Plan for AIDS Relief) 관계자들을 만나 케냐 내 지원 중단의 심각성을 호소했다. 미국의 원조 중단 이후 케냐에서는 HIV/AIDS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는 마칸다가 섬



나이로비 아프리카국제 대학교. ©Africa International University

기는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쳤다. 최승연 기자 →19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시 OUT/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병크법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래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태양광, 솔라!!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ITC: 30% 이상
☑️ 솔라 설비의 평가상각비 총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2025년 대박
BTS SOLAR DESIGN 213.500.8000

baeksong.kr
2025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A church where miracles are real
LA백송교회 Lily Pine International Church
Spirituality Festival
찬양과 말씀의 향연
Praise
기름부으심이 넘치는
이순희찬양콘서트 Victoria Lee Praise Concert
10/25/2025 (SAT) 3:00 PM
LA백송교회 담임
김성식 목사 Pastor . Daniel Kim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 Tel. 562-606-2345 , 213-249-4790
20th
기적, 변화, 치유의현장
성령컨퍼런스 20th Holy Spirit Revival Conference
10/26/2025 (SUN) - 11/5 (WED) 7:30 PM
백송교회 담임
이순희 목사 Pastor .Victoria Lee

밀알의밤, 세밀한 돌보심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

남가주 밀알 선교단 주최
ANC온누리, 남가주동신교회
1,200 여명 참석

장애인 선교단체인 남가주밀알 선교단에서 주관한 ‘2025 밀알의 밤’이 ‘돌보심(베드로전서 5:7)’이란 주제로 10월 3일(금)과 5일(주일) 이틀 동안 ANC 온누리교회(김태형 목사)와 남가주동신교회(백정우 목사)에서 개최됐다.

올해 밀알의밤 메인게스트는 배우 ‘오윤아’ 집사는 배우로서 뿐만 아니라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들 ‘송민’군을 사랑으로 정성껏 돌보며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오윤아 집사는 ‘돌보심’이란 이번 밀알의밤 주제 처럼 모든 염려와 불안을 거두어 가시고 한없는 평안과 위로로 늘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고 열정적으로 전했다.

지난 젊은 시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로부터 간증을 시작한 오윤아 집사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어머니가 교인들로부터 심한 상처를 받아 한동안 교회를 쉬었다고 했다. 이후 가세가 기울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해 몸과 마음이 몹시 힘들던 차에 어느 노방전도자

를 통해 새로운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께 고하며 간절히 기도하던 중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너를 다 보고 있었다.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라는 음성을 듣고, 일생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후 배우로 데뷔하여 무명시절 없이 활발하게 활동했고, 결혼해 임신을 했는데, 드라마 촬영으로 바쁜 일정 중에 출산을 하게 되었고, 태아에 좋지 않는 영향을 끼쳐 결국 아들 민이는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진단받았다. 처음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큰 슬픔, 절망과 함께 아들이 장애인인 된 게 자신의 잘못 때문인 것 같아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큰 위로를 받았고 그분의 손길이 자신을 끊임없이 돌보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오윤아 집사는 비록 장애아를 키우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팠지만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큰 보



남가주밀알선교단에서 주관한 ‘2025 밀알의밤’ 이 돌보심이란 주제로 ANC 온누리교회와 남가주동신교회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남가주 밀알 선교단 제공

람을 느꼈고, 또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싶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오윤아 집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에 절망이나 두려움 없이 소망에 찬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자폐아동들과 그 부모들을 깊이 사랑하고 응원해 주길 당부했다.

오윤아 집사의 감동적인 메시지에 약 1200명이나 되는 참석자들(ANC온누리교회 400명, 남가주동신교회 800명)은 큰 은혜를 받고

큰 박수로 화답했다

밀알 장학생 소개 영상에 출연한 ‘제시카송’ 자매는 다운신드롬 장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맑고 순수한 신앙과 엄마와 행복하게 살아가는 소박하고 정겨운 모습으로 참석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했으며, ‘남가주밀알 수어찬양단’은 바쁜 일상 속에서 수어찬양곡 〈나의 하나님〉을 열심히 연습해 최상의 아름다운 공연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제시카송 자매를 비롯해 마이클 림 형제, 윤진아 집사, 이유리 간사, 송영석 전도사 등 밀알 단원들이 함께 헌금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를 불러 은혜를 더해 관객

들로부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2025 밀알의밤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은 장애인 학생들에게 ‘2026 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을 수여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 행사를 주최한 남가주 밀알선교회는 “장학생 선발 과정과 장학금 수여식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장애인 학생들에게 작으나마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란다”며, 밀알선교단이 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전하는 사역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전세계 정세가 불안하고 극심한 혼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밀하게 돌봐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다. 이번 밀알의밤 주제 성구 베드로전서 5:7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완전히 맡기길 바라며, 오윤아 집사가 아들 송민 군을 정성껏 보살피듯 우리 밀알선교단도 장애인들을 더욱 열심히 케어하며 복음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길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이윤준 기자

→1면 기사 <익투스 콘서트>에 이어서, 77년 고집 께인 엄마, “내가 믿는 예수님 내도 믿을란다”

조혜련 집사는 7년 전 그가 새생명비전교회에 간증 집회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소변줄을 차고 휠체어를 탄 어머니가 동행했다고, 그때 마침내 어머니의 오랫동안 꺾이지 않던 고집이 꺾였다고 말했다.

“그 선교사님이 엄마에게 물으셨다. ‘삶이 어때요?’ ‘뭘이 안좋소.내 몸도 이리 망가지고, 애들도 힘들게 살고, 막내 아들 생각하면 속상합니다.’ ‘제가 그 막내 아들 개런티 할게요, 인간이 만든 우상 섬기지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 믿으세요.’ ”

“그런데 밤에 소변을 빼주려 엄마 방에 갔는데, 엄마가, ‘얏아 봐라’ 하셨다, ‘왜’ 그랬더니, ‘내가 몇 시간 동안 내 인생을 뒤돌아 봤는데 너무 허망하고 허무하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도 믿을란다.’”

조혜련 집사는, 그날 밤, 엄마를 끌어 안고,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리는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줄 아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다.

그로부터 7년 1개월이 지났고 그 기간 동안 어머니는 성경은 80번 읽으셨다. 엄마가 왜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는지 궁금했던 조 집사는, 어머니에게 이유를 물었다.

“엄마 왜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내가 77년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온 것이 너무 후회되고 되돌리고 싶다. 근데 되돌릴 수가 없다. 내가 오늘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내 말씀 하나를 붙들고, 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할기다.”

조혜련 집사는 자신의 ‘기도노트’를 펼쳐서 보여주며, 그들 가운데 몇몇이 예수님께 돌아왔고, 최근 개그맨 전유성 씨 역시 임종을 앞 두고 며칠 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소식을 나눴다.

그는 폐기흥으로 위독해진 고(故) 전유성 씨가 성경을 읽고, 오디오 성경을 들으며 마지막을 보냈으며, 마지막으로 그와 나눈 대화를 전했다.

“성경책을 읽는데 글씨가 작아서 민수기 15장까지 밖에 못 읽었

어, 내가 시간이 그리 없는데 어떡하지?’ 라는 거예요. 제가 오디오 성경을 드렸다. 근데 오빠가 뭐라고 하나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지 너무 후회가 된다.’”

이어서 브라이언 김이 무대에 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Way Maker’, ‘주가 일하시네’ 등 찬양을 통해 은혜를 나눴다. 그는 한국어를 잘 몰라 엉뚱한 한국어 단어를 사용한 일, 토이저러스(ToysRUs)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주겠다는 어머니의 제안에, 한창 사춘기 때, 교회 찬양대회에서 동생과 찬양하며, 울동한 기억들을 나누어 관객을 폭소로 이끌었다. 최근 집회에서 받은 아이들의 편지를 소개하며 어린이·청소년 사역의 중요성을 나눴다.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다음 세대와 춤추며 뛰는 그런 예배자가 되고 싶다. 얼마전에 시카고에 갔다왔다, 시카고에 앞자리에 열 살 꼬마아이가 앉아 있었다. 아이가 집회가 끝나고 편지를 썼는데, 저한테 이렇게 썼다. ‘브라이언, 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이런 생각

을 갖으면 안되는 줄 아는데, 가끔 살고 싶지 않아요.(Brian, please pray for me. I know I shouldn’t think like this, but sometimes I don’t want to live.) 전주에 어린 이성경학교에 갔는데 한 아이 끝나고 편지 썼어요. ‘브라이언 김 목사님께, 저는 절망에 빠졌어요. 그리고 오늘 찬양을 듣고 처음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이언 김은 그의 대표곡 ‘주가 일하시네’에 얹힌 사연을 전했다.

“주가 일하시네 발표하고, 사기 당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을 경험하고 저는 주님이 저를 버린 줄 알았다. 하나님 찬양하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것이 10년 전이다. 다시 남가주에 LA에 오게 된 것은 주님의 일하심인 줄 믿는다.”

이어서 조혜련 집사와 러빙워십 팀이 함께 무대에 올라 ‘생명 주께 있네’를 앵콜곡으로 찬양한 후 강준민 목사의 마침 기도모임으로 집회 순서를 마무리했다.

다음 날인 10월 5일(주일) 오후

7시 30분에는 두번째 익투스 콘서트가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에서 개최되어, 남가주에 은혜의 물결을 이어나갔다.

마지막 익투스 콘서트는 10월 10일(금) 오후 7시 30분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 본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러빙워십은, “문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함께 하는 모든 이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기 소망한다”며 교회 연합과 복음의 열정의 회복을 위해 문화사역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러빙워십이 남가주 교회를 위해 준비한 또 하나의 행사, 연극 ‘사랑해 엄마’(조혜련 출연, 연출)가 다우니 극장(8435 Firestone Blvd, Downey, CA 90241)에서 열린다.

연극 <사랑해 엄마> 공연 일정은 다음과 같다.

10월 12일(주일) 오후 7시
10월 13일(월) 오후 2시, 오후 7시
문의: 213- 357-1565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FREE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 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폴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www.btssolardesign.com



SCAN ME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5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213.500.8000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714.702.0151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아름다운교회 안수임직예배, “하나님께 드린 헌신만이 영원히 남아”

총 21명의 목사, 안수집사, 권사, 명예권사 임직 받아

아름다운교회(고승희 목사)가 5일 오후 4시에 목사, 안수집사, 권사, 명예권사 임직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일꾼들을 세웠다.

이날 ‘하나님 나라의 일꾼(사도 행전 8:26-31)’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남가주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는 “하나님의 전략은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며 “오늘 임직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 가실 줄 믿는다”고 했다.

박 목사는 “임직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사건이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바른 동기와 순전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며 “똑같은 일을 해도 동기에 따라 열매가 달라진다. 이기적이거나 탐욕적인 동기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빌립은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으로,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에 내려가 큰 부흥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곳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광야로 나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다”며 “빌립의 사역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헌신이었다”고 했다.

박 목사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한다. 빌립을 움직이게 한 것은 그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였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이어 “둘째로 광야의 길을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빌립에게 사마리아의 부흥을 뒤로하고 광야로 가라고 명하셨다. 많은 사람을 두고 떠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빌립은 순종했고 그곳에서 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다”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한 나라를 변화시키셨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셋째로 비전의 행보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광야에서, 가사에서, 아소도와 가이사라까지 계속 복음을 전했다. 멈추지 않고 가며 주의 사명을 완수했다”며 “우리도 예수 복음이 전파되는 날까지 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않으면 천국에서는 성공자가 아니다”라며 “하나님께 드린 시간과 헌신만이 영원히 남는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하 목사(살롬선교침례교회)는 권면에서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어라. 이것 못한다면 하지 마십시오”라며 “매일 자신에게 물어보라. 내가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가?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쓰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0년 목회는 복 중의 복이며 은혜 중의 은혜였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이것밖에 저것밖에 흔들리지 말라. 오직 목양에 힘쓰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직분자들에게는 “교회를 위해 인생을 거십시오. 내가 왜 안수를



아름다운교회(고승희 목사)가 5일 오후 4시에 목사, 안수집사, 권사, 명예권사 임직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일꾼들을 세웠다. ©기독일보

받았는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다면 저분 같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사역하라”고 말했다. 그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권면을 한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는 “안수집사는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명자다.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도 일곱 안수집사 중 한 명인 스테반이었다”며 “오늘 귀하께 안수를 받으신 분들은 이미 그 마음으로 섬겨온 분들이다. 수양관에서의 수련회 때 새벽까지 섬겨주신 집사님들을 보며,

‘이분들은 이미 안수집사구나’ 느꼈다”고 했다. 이 목사는 “이분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히 서 가야 한다”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일하는 것도 순교의 삶”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며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맛있는 신앙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사를 한 한상호 목사는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임을 잊지 않겠다”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으로 남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동엽 목사는 “제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경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한 일”이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죄 사함의 축복임을 믿게 되었을 때, 그것이 제 신앙 여정의 진정한 출발이었다”고 했다. 이어 “섬김의 도를 여러분에게 배우며,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목사 3명, 안수집사 5명, 권사 5명, 명예권사 8명 등 총 21명이 임직을 받았다.

토마스 맹 기자

남가주 설교 페스티벌 〈연합을 이루어 나가자〉

→1면기사 〈설교페스티벌〉에 이어서 설교 본문은 (구약) 왕하 18:6, 느 4:15-23, 시113:1~3, 렘 50:5, (신약) 마 18:19-20, 요15:1-8, 골2:2~3, 골 2:19에서 선택할 수 있다. 상금은, 설교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2,000불, 모범상 주해상, 전달상, 비전상, 발전상, 은혜상 등 수상자들에게는 \$1,000씩 수여된다. 설교 페스티벌 참가하는 신학대학은 1,000불의 참가비를 내야 한다.

심사위원은 각 대학 지도교수와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추천인, 그리고 각 대학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대학별로 청중평가단을 3명씩 추천하여 참석하게 된다. 각 청중평가단들은 가장 우수한 설교 페스티벌 참가자에게 1점씩 점수를 줄 수 있다.

연락처: 성시화운동본부
holycitymovementus@gmail.com,
213-407-4569.

연세대 동문회, 오는 25일 ‘건강박람회’ 개최

연세대학교 남가주 동문회가 10월 25일(토)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남가주 사랑의교회(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에서 ‘연세건강박람회’를 개최한다.

연세대학교는 1885년 한국 최초 근대식 서양 의료 기관으로 설립된 광혜원(제중원)에 두고 있다. 이 기관을 설립한 기독교적 정신과 사랑·봉사·헌신의 가치가 이번 건강박람회에도 이어지고 있다.

남가주 지역에는 약 2,000명의 연세대 동문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중 의과대학·간호대학 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동문회는 이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장으로 건강박람회를 마련했다.

올해 박람회는 지난해의 경험을 살려 한층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준비됐다. 주요 내용은 ▲내과·안과·소아과·정신과 등 전문 분야의 건강검진 및 상담 ▲독감 예방접종, 간염 및

혈당 검사 ▲치매·우울증·불안증 진단 ▲건강 관련 세미나 등이다.

남가주 동문회 측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꼭 필요한 건강검진과 상담을 받을 뿐 아니라, 준비된 기념 선물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행사 관련 문의는 박지나 홍보·미디어 담당(310-293-5054, yonseiconnectsc@gmail.com)에게 하면 된다.

토마스 맹 기자

차세대 지도자를 세우는 세계 교육 선교회 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COREA

세계교육 선교회(COREA)는 척박한 선교지를 건강한 신앙 교육으로 섬깁니다.

세계교육 선교회(COREA)는 선교지에 학교, 방과 후 학교, 대안학교, 교회 학교 를 운영하고, 후원하며 차세대 지도자를 양육합니다.

세계교육 선교회(COREA)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몽골,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티, 수리남 등지에 학교운영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중입니다.

세계교육 선교회(COREA)는 한국의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을 진행합니다.

COREA (Charity Organization for Relief and Education Aid)를 섬기는 사람들



이사장 한성도 목사



후원이사장 정재원 목사



홍보 이사장 이종용 목사



상임이사 박성효 장로



상임이사 유우식 장로



대표 강태광 목사

후원 : COREA 세계 교육 후원회 (농협 301-0365-1167-81)

서울 양천구 지양로 9길 3층 302호(신월동) 연락처 : 한국 010 8113 9100 미국 323 578 7933

좋은나무교회, 신윤석 목사 담임목사 취임예배 드려

오렌지 카운티 지역 라 미라다 (La Mirada)에 위치한 좋은나무교회(신윤석 목사)가 10월 5일(주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신윤석 목사의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교인들과 지역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하고 감사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심삼열 전도사의 인도로,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을 부르며 예배가 시작되었다. 김원일 장로의 대표기도 후 성경봉독(요한복음 10장 10~17절)에 이어, 노진걸 목사(풀러튼장로교회 원로목사, KPCA증경총회장)가 "선한 목자와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노 목사는 "참된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사람이며, 예수님이 그러하셨다"고 전하며 "목회자는 교회를 섬김과 사랑으로 세워 가야 한다"고 권면했다.

이어 집례자 노진걸 목사의 인도로 예식이 진행되었다. 예식 이후 이상명 목사(프레스티지대학교 총장)가 축사를 전하며 "좋은나무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신 목사



좋은나무교회가 10월 5일(주일) 오전 11시 신윤석 목사의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드렸다. ©좋은나무교회

님을 통해 더욱 견고히 세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면은 홍명의 목사(PCUSA 남가주와이대회 총무)가 전했다. 홍 목사는 "목회자는 언제나 겸손히 주님께 순종하며 교회를 사랑으로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찬양대는 '주의 은혜라'를 특송하며 은혜로운 찬양을 올렸다.

이날 예배에서는 주성기 장로(새생명선교회 이사장)가 기금전달을 했으며, 신윤석 목사가 취임 인사를 전했다. 신 목사는 "예수님께 목숨을 거는 목회자가 되겠다. 겸손히 순종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은 베뢰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이

고 간절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라며, "앞으로는 교회 성장과 활동, 즉 doing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이제는 being에 집중해야 한다. 관계와 사랑에 기초한 목회를 이루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M.Div.)를, 풀러신학교에서 교차문화연구석사(M.A.)

를, 맥코믹신학교에서 목회학박사(D.Min.)를 취득했다. 그는 나성영락교회 부목사와 애너하임장로교회 담임목사로 섬긴 바 있다. 가족으로는 아내 신숙영 사모와 자녀 3명, 손자 1명이 있다.

예배는 이종휘 집사의 인사 및 광고 후, 김대평 목사(나성한미교회 원로)가 축도하며 모든 순서를 마쳤다. 참석자들은 교제의 시간 속에 신임 담임목사와 교회를 위해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좋은나무교회는,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다. 신임 담임목사 취임을 계기로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로 성장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조셉 리 기자

주소 ;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교회 웹사이트; www.goodtreefellowship.com

주일 예배 10:00 AM

수요 예배 7:30 PM

화-금 새벽기도회 5:30 AM

“하나님의 권능으로 태어나 다시 부르심에 응답”

나성서남교회 최권능 목사 ‘늘 새롭게’ 간증 전해

나성서남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최권능 목사가 최근 TV기독교일보 간증 프로그램 ‘늘새롭게’에 출연해 자신의 이름에 담긴 특별한

이야기와 목회 여정을 솔직하게 나눴다.

최 목사의 이름 ‘권능’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다. 어머니는 네 차례의 유산으로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했다.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 끝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최권능 목사다. 그는 “제 이름을 들으면 사람들은 대개 ‘부담스럽겠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어린 시절에는 그 이름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 존재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태어났다는 고백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중학교 시절, 그는 자신이 목사가 되어야 한다

는 사실에 반발심을 느꼈다. 어머니가 하나님과 한 서원 때문에 본인이 목회의 길로 간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 그건 부모님과 하나님과의 계약이지 제 몫이 아닙니다. 저는 빠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반항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이제는 너와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그는 말했다. 그 순간 부모님의 서원이 아닌 자신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고, 목회의 길을 걷는 것을 인생의 사명으로 받아들였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그분의 권능으로 시작된 인생이라는 정체성이 제 목회 여정을 지탱해 왔습니다”

2019년 10월, 최 목사는 나성서남교회에 부임했다. 교회가 취임예

배를 준비하고 있던 때는 2020년 3월. 하지만 바로 그 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셧다운’ 명령이 내려졌고, 교회의 문은 닫혔다.

“예배당은 텅 비었고, 카메라 한 대만 바라보며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교인들이 흩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 안의 불순물을 태워내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야와도 같은 그 시절, 그는 교회의 본질과 목회의 본질을 다시 붙들게 되었다. 성도의 수나 외형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는 신앙으로 교회를 이끄는 훈련이었다. 최 목사는 자신의 목회를 이렇게 정의했다. “온실 속 화초 같은 목회자 아니라, 광야의 잠초 같은 목회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힘들고 고달팠지만, 오

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연단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교회를 세워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잘 믿는 교회, 주님 다시 오실 때 가장 앞자리에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이 부르심을 붙들고 달려가자고 다짐합니다.”

간증의 마지막에서 최 목사는 자신의 여정을 이렇게 정리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순간에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는 가장 좋은 길이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제 삶이 그러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토마스 맨 기자

주소: 16100 Crenshaw Blvd,

Gardena CA 90249

교회 웹사이트; www.kcswla.com/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맹창현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NEW 2026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NEW 2025 HYUNDAI Elantra Hybrid
Blue

NEW 2026 HYUNDAI Santa Fe
Calligraphy

NEW 2025 HYUNDAI Ioniq 6
Limited RWD

NEW 2025 HYUNDAI Ioniq 5
Limited RWD

0%

APR Financing (차종에 따라)

48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한인 메카닉 서비스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Frank Kim
323.823.0682

Sean Kim
213.605.2886

Jae Lee
714.319.4611

HYUNDAI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HYUNDAI Assuranc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센터메디컬그룹**

**제4회 시니어
골프대회**
in **BUENA PARK**

**2025. 11. 03** (월)

**오전 10시** **샷건**

오전 9시까지 체크인

**골프 대회 참여 정보**

참가비

\$180

*참가자 이름으로 100% 전액 이웃돕기성금으로 기부됩니다.

참가인원

120명 한정

점심 도시락 & 디너 식사 제공

참가대상

만 64세 이상 시니어

대회주소

LOS COYOTES COUNTRY CLUB
8888 Los Coyotes Dr
Buena Park, CA 90621

**오늘의 스코어? 선물 한가득 가져가셨습니다~**

> 행운의 홀인원 첫 주인공

\$10,000

현금 지급

> 아시아나 LA - 한국 왕복 항공권

> 가부키초스시LA 식사권

> 다이아 목걸이

> 청운부페 식사권

> 정관장 홍삼 세트

> 올림픽골프 상품권 + 골프용품

> 폴라리스 성형외과 상품권

> Park Golf 골프용품

> K-Beauty 성형외과 상품권

> Berryland 건강 제품

> 남 / 여 사우나 입장권

> 포크벨트 천연가족벨트 등등

총 \$20,000 상당의 푸짐한 상품을
실력과 상관 없이 참가자 전원 모두에게 함께 나눕니다!

*상품 목록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품 목록은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주최/주관

**센터메디컬그룹**

후원

ASIANA AIRLINES

BERRYLAND
fresh and delicious

포크벨트

가부키초스시

JUNG KWAN JANG

K-Beauty 성형외과

OLYMPIC GOLF

PARK GOLF, AI

Polaris
medical aesthetics

참가 문의 (888) 847 - 3098 · 9 AM - 5 PM (월 - 금)

주최/주관

**센터메디컬그룹**

후원

ASIANA AIRLINES

BERRYLAND
fresh and delicious

포크벨트

가부키초스시

JUNG KWAN JANG

K-Beauty 성형외과

OLYMPIC GOLF

PARK GOLF, AI

Polaris
medical aesthetics

참가 문의 (888) 847 - 3098 · 9 AM - 5 PM (월 - 금)

목회자들에 ‘시계’ 보다 ‘나침반’ 돼줄 것… 설교, 신앙인 넘어 교양인 길러야

2026년 목회 화두, '상식과 시민' 극단 아닌 균형, 설교 본질 회복 기독교 호감도 9%? 성찰 시급 반영신학 부작용, 급성장 급추락 상식 존중 신앙, 공공성 회복으로 백 투 초대교회? 지역에 뿌리를 기독교, 극우 아닌 보수 회복을 설교, 시민 의식 중요성 언급을 목회트렌드2026 저자 김도인 외 글과길, 370쪽, 22,000원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새해 목회 계획 수립에 앞서 성찰과 통찰을 제시하고 있는 '목회트렌드 시리즈'가 2026년 '상식이 통하는 목회'와 '신앙인을 넘어 시민을 길러내는 설교'를 제시했다.

목회트렌드연구소의 '목회 트렌드 시리즈'는 지난 1년간 교회와 목회를 돌아보며 진단하고 성찰해, 빠르게 달라지는 AI 시대 발견하고 도전해야 할 부분을 조망하고 있다.

최근 『목회트렌드 2026』 발간을 맞아 저자들 중 김도인 목사(아트설교연구원)를 비롯해 이상갑 목사(산본교회), 권오국 목사(이리신광교회), 박혜정 선교사(GMP 알바니아), 김민석 교수(백석대) 등 5인과의 기자간담회 이후 질의응답 내용을 소개한다. 올해 시리즈에는 이들 외에 박윤성 목사(익산 기쁨의교회), 박종순 목사(미국 렌초제자들교회), 김지겸 목사(오랜랜드감리교회) 등도 참여했다.

대표 저자인 김도인牧사는 “강단의 설교는 신앙생활과 부흥밖에 없다. 교인이 시민 교양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설교할 능력이 없다”며 “교인은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는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야 한다. 시민 교양을 세상보다 더 잘 갖춰야 한다. 그렇지 못하니 극단 정치에 빠진다. 그러면 교회의 사명 중 하나인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권오국 목사도 “그리스도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이중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이 정체성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근거가 된다”며 “설교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의 시민으로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하고 변혁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금은 좋은 시민과 좋은 기독교



▲ 『목회트렌드 2026』 저자들. (왼쪽부터) 박혜정 선교사, 권오국·이상갑·김도인 목사, 김민석 교수.

인 둘 사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상갑 목사: 우리가 보통 '신앙이 좋다'고 하는 상태가 정말 세상에서 바라볼 때도 좋을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설문조사를 보면, 불신자들의 기독교 호감도는 9%에 불과합니다. 91%가 호감을 갖지 않고 있다는 의미인데, 그야말로 '폭망' 수준이죠.

지금은 자녀가 교회 간다고 하면, 부모들이 '안 된다'고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교회를 안 다녀도, 자녀들에게는 '교회 가라'고 했죠. 교회에 소망과 가능성이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지금은 왜 그렇게 됐는지 성찰하고 통찰할 때입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에서 고지론(高地論)을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부(富) 등이 높이 올라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일종의 반영신학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높이 올라가신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기독교는 더 급격하고 빨리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좌든 우든 극단적으로 가거나 상식을 벗어난 말과 행동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상식을 존중하면서 이를 초월해야 기독교다운데, 상식은 없고 초월성도 빠져 버린다면 진정한 기독교다움이라 보기 힘듭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기도 힘들겠죠. 교회가 극단화를 멈추고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내려면, 상식을 존중하면서 설교를 통해 건 강한 공공신학적 기초 위에 풍부하게 뿌리내리고 서야 할 것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때 다시 한번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가

지지 않을까 하는 기본적 성찰을 책을 통해 던져봤습니다.

김민석 교수: 교회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을 때 가장 많이 내거는 캐치프레이즈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점 때문에 돌아가려는 것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나 한국의 초대교회를 돌아보면, 교회는 당시 지역과 함께 했습니다. 다른 종교는 산에 건물을 짓고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거룩을 추구하지만, 기독교는 산 속으로 들어가자 않았죠. 우리는 동네 안에서 함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자주 우리만의 그룹에 머물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세상과 교제하기보다 담을 쌓으려 합니다. 세상 사람과 대화하지 않은 채 교회에만 머무는 사람을 '신앙이 좋다'고 여기기도 해요.

매일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며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신앙이 좋다'고 하지,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잘 섬기고, 소금과 빛 역할을 하는지는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신앙 성장과 지역사회에서의 공적 역할이라는 양 날개의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돼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교회'의 소금과 빛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세상에서 지탄받고 있는, 그런 이중적 모습 때문에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기독교인들에 대해 '이중적'이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적으로만 보고, 상대할 곳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실 세상의 일

반 시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재적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들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다가가서 환대하고 섬기는 모습이 회복돼야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권오국 목사: 설교자는 성도들을 선교적 삶으로 초청하기 위해 세가지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먼저 설교자의 리더십과 메시지가 변화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단순히 영적 지식을 전달하는 강사를 넘어, 회중을 세상 속 선교사로 파송하는 '코치'가 돼야 합니다.

둘째, 설교자는 예배와 설교를 통합해 욕망을 교정하는 영적 실천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설교는 단지 귀로 듣는 정보가 아니라, 찬양과 기도, 성찬으로 이어지는 예배 흐름 속에서 성도들의 '욕망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셋째, 설교자는 상상력을 통해 설교해야 합니다. 시인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를 그려야 합니다. 딱딱한 교리 설명 대신, 성경 내러티브와 생생한 이미지, 강력한 은유를 사용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소망 있는 곳인지를 그려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들은 그 나라를 '욕망'하고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타 트렌드 도서들과 달리, 목회트렌드 시리즈만의 차별성이 있다

면. 김도인 목사: 기독교는 보수여야지, 극우가 돼선 안 됩니다. 뭇든 극단은 문제가 있죠. 교회 일부가 정치화됐고, 반신앙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희망이 없죠. 비상식적이고, 말이 안 통합니다. 안 믿는 분들이 '교인들은 상식이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결국 정답은 '설교'에서 찾아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설교에서 영적인 이야기만 하다 보니, 교회를 나가는 순간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살아갑니다. 시민으로서의 삶과 의식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올해 주제로 삼았습니다.

다른 트렌드 도서들은 그 바탕에 통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떤 고민을 갖고 목회할 것인가가 중심에 있습니다. 실력으로 승부하고 싶어서, 홍보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4년째 됐는데, 10년은 해보려 때문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의미 있는 시도이자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유명한 목사님들을 저자로 모시지 않느냐는 말도 과거에 들었지만, 세 번째 시리즈 이후로는 그런 말이 들리지 않네요(웃음). 그래서 더욱 도전할 수 있고 몸부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드백을 좀 받으셨는지요.

김도인 목사: 현장에서 고민하는 담임목사님들이 즐겨 보신다는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 트렌드 시리즈가 설교를 준비할 때 좋다고 하십니다. 교회 표어를 잡을 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담임목사님들이 좋아서 추천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상갑 목사: 저는 '시계와 나침반'으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의 '한국교회 트렌드 시리즈'가 시계라면, 저희는 나침반이죠.

목회자들이 시계만 계속 쳐다보면, 조금해지고 다급해지거나 현상과 상황만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목회트렌드 시리즈를 집필하면서 '시계보다 나침반'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집필하면서 회의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장기적 관점에서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제대로 갈 수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침반으로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치유와 회복이 이뤄지고 변화와 변혁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목회에 대해 고민하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성애 등에 대한 한국교회의 접근이 다소 불친절하다고 지적하셨 습니다.

김민석 교수: 이런 말씀을 드리면, 동성애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동성애에 찬성하지 않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좋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개인적 자리나 논문으로 그렇게 입장을 밝히지만, 표현 방법을 다소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불편하게 느낀다면, 어휘나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다루고 논의할 수 있지만, 폭력적·강압적으로 다가서는 것은 아닐까요? 대화와 타협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우리나라는 크리스텐덤 국가가 아니고,

〈다음호에 계속〉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단단히 지지해 주는 등받이 사용으로 편안한 운전을 경험해 보세요.
매일 운전하시는 분들, 장거리 운전하실 경우,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장점 1
나무는 좌석에 기대었을 때 신체에 맞게 윤곽이 잡힐

장점 2
커버 소재는 다이빙 슈트로 제작

장점 3
내구성이 뛰어나며 운전자에 맞게 늘어짐

www.j1mart.com
웹사이트에서 바로 주문하세요.
문의 : 213-434-1170

서울메디칼그룹과 한미메디컬그룹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두 메디칼그룹의 마음을 모아,
5,500여명의 주치의와 전문의가
이제 한 마음으로 여러분 곁을 지킵니다.
더 넓어진 진료와 다양해진 혜택으로
한인 커뮤니티를 더 따뜻하게 돌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큐알코드를 찍고 SMG 카카오톡채널에 방문하세요!

미얀마 강진 6개월 아동들 불안과 두려움 여전



▲세이브더칠드런 지원 학용품 키트를 받은 아동들이 지진으로 무너진 학교 건축 현장을 바라보는 모습.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6개월 전 미얀마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도적 위기 상황이 더욱 악화돼 현지 주민 9백만 명이 주거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 중 3분의 1 이상이 아동이라고 밝혔다.

미얀마는 이미 분쟁과 기후위기로 전체 인구의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약 2천만 명이 식량, 의료,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미얀마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7.7의 강진으로 3천8백 명 이상이 사망하면서 아동들의 생활 여건은 더욱 어려워졌다.

일부 가정은 피해를 입었던 집으로 다시 돌아왔으나 아동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가족과 만달라이 지역에 사는 17세 아동 미얏 투(가명)는 지진 당일 혼자 식료품을 구매하고 있었고 처음으로 파괴적인 지진을 겪은 후 여진을 두려워하며 높은 건물을 지나갈 때마다 불안함을 느낀다.

미얏 투는 “우리 집은 지진으로 기울어졌고 흙에 파묻혔다. 위에 있던 물건이 전부 떨어졌다”며 “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지진인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42세 어머니 킨 유(가명)은 “지진 이후 7살 막내가 아기가 됐다. 전에는 학교 갈 준비도 스스로 하고, 화장실도 혼자 갔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한다”며 아동들의 변화에 대한 상황을 전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미얀마 지진 피해 지역에서 아동 5만 명 포함 18만 명에게 지원을 제공했다. 이불, 모기장 등 긴급 구호 키트 2만 6천 개, 텐트 1천개를 배포하고 아이들이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놀이 공간 47개를 설치했다.

또 19만 명에게 식수를 제공하고, 비누, 치솔 등 위생용품 키트 1만 2천 개를 배포했다. 식수 시설, 화장실과 샤워 시설도 설치했다. 아동 4천 명에게 정신건강 및 심리지원을 제공했으며, 학교에 다니는 아동에게 학교 가방, 공책, 연필, 줄자 등 학용품 키트를 전달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도 미얀마 지진 피해 대응을 위해 15만 달러(약 2억 2천만원)를 지원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전 세계 재난 속 아동을 구하기 위한 ‘세이브원(Save One)’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세이브더칠드런 공식 홈페이지 내 세이브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경 기자

인도 우타라칸드주 첫 기독교인 무죄판결, 종교 자유에 중요한 선례 남겨



©pixabay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인도 우타라칸드주에서 종교 전환 금지법으로 기소된 첫 기독교인이 4년간의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1일(이하 현지시각)에 밝혔다. 이는 2018년 법 제정 이후 첫 무죄 판결로, 종교 자유 보장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CDI는 지난 9월 17일, 나이니탈 지구 람나गर 법원의 안주 치안판사가 난단 싱 목사(본명 나렌드라 싱, 널리 알려진 이름은 난단 싱 비슈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싱 목사는 2021년 10월 자택에서 25명과 함께 기도 모임을 갖던 중 마을 주민 30여 명이 난입해 폭력을 행사했고, 이후 ‘불법 개종 시도’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다.

CDI는 난단 싱 목사가 당시 경찰서에 하루, 하드와리 교도소에 일주일간 구금됐으며, 아내와 세 살 딸 역시 일시적으로 경찰에 의해 억류됐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힌두교도 자그디쉬 찬드라의 진술에 근거해 사건을 기소했다. 찬드라는 목사가 약 6개월간 기도회를 열며 빈민과 하층민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 피해자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은 여섯 명의 증인을 불러냈으나, 대부분 목사의 개종 강요를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일부 증인은 자신과 가족이 종교 전환을 강요받은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 수사 담당 경찰관 역시 ‘불법 개종’을 입증할 만

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CDI는 난단 싱 목사가 긴 재판 기간 동안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아내가 임신 중이었으나 체포와 재판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끝에 아이를 잃었고, 사회적 낙인과 법적 출석 의무로 직업 활동도 이어가지 못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항상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며 신앙의 힘으로 버텼다고 전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종교적 기도 모임은 개인의 종교 자유에 속하며, 이를 불법 개종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고소인은 피해 당사자도, 피해자의 가족도 아니며 단순한 소문에 의존한 간접 증인자”라며 법적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결국 검찰은 입증에 실패했고, 목사는 모든 혐의에서 벗어났다.

CDI는 이번 무죄 판결은 종교 자유의 헌법적 보장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현지 인권 단체들은 “이번 판결은 향후 전환금지법 남용을 막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법의 모호한 조항 때문에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한편,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오픈도어스는 인도를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가 심한 나라 11위로 꼽았다. 인도는 2013년 31위에서 점차 순위가 하락했으며, 힌두 민족주의 정권 집권 이후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과 괴롭힘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승연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 833-9090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1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주일영양기도회 오전 10:00 분당

OMC 중등동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 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주일영양기도회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coffee1@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절절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형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새벽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중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choonghyun.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종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50
3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부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on 코너)
T. (213)386-2233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청소년예배 오전 10:5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토요비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종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주일학교예배
수요예배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토)
오전 11: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9:00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한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장년예배 오후 2: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c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GRO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창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 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2부예배 9:30am
주일3부예배 11:15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일EM예배 11:00am
수요찬양집회 7:30p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cr.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여대학창년예배 오후 2:00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국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상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중고등부 오전 11:15
한여부 오후 1:00
KM대학창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20
2부예배 오전 09:10
3부예배 오후 11:2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급반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장년(교육부서)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AM
주일 2부예배 11:00 AM
새벽기도 화-토 6:00 AM

금요찬양예배 7:45 PM
교회학교예배 11:00 AM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11:40

주요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5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 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호주 성공회, NSW주 성소수자 전환 치료 금지법 시행 방식에 우려 표명



시드니 성공회 카니슈카 라펠 대주교는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성소수자 전환치료 금지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Creative Commons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 시행 중인 성소수자 전환치료 금지법(Conversion Practices Ban Act 2024)의 적용 방식에 대해 호주 성공회 지도자들이 종교 자유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1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NSW 정부는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시드니 대교구를 포함한 NSW 전역에서 ‘위험하고 해로운 전환치료 행위’에 가담한 경우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24년 3월 주 의회를 통과해 4월 4일부터 발효됐다. 시드니 성공회는 지난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제53차 대교구 시노드 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시행 과정이 종교 활동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크리스 민스(NSW 주총리)는 법 통과 당시 기도와 설교 등은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약속했으나, 시드니 성공회는 현재 이를 집행하는 주정부 산하 인권기구 Anti-Discrimination NSW가 해당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스테드 주교는 “성경이 가르치는 성 윤리를 전하고, 이에 따라 살도록 권면하며 기도하는 행위가 NSW 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현실적 가능성이

생겼다”고 우려했다. 그는 신앙 지도자들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종교 활동이 규제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집행 지침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스테드 주교는 “헌행법은 성적 지향과 성적 행위를 구분하지 않으며, 금욕을 권하거나 이를 위한 기도를 제공하는 것조차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까지 법적 관례가 없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며, 당국은 모호한 사안도 모두 접수해 법원 판결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카니슈카 라펠 대주교 역시 개회 연설에서 “이 잘못된 법으로 인해 성직자나 교회 일꾼이 법정에 서게 된다면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자유는 어떠한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노드 대의원들은 라펠 대주교의 발언에 박수를 보내며, 정부가 선거 당시 약속한 종교 자유 보장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성, 결혼, 정체성과 젠더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선포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기도하는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최승연 기자

英 성공회 최초 女 수장 탄생... 동성 커플 축복 주도 이력 논란



▲사라 멀러리 신임 터베리 대주교. ©람베스궁

영국성공회가 여성 수장을 배출하면서 교단 내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3일(현지시각) 발표에 따르면, 사라 멀러리(Sarah Mullally) 주교가 차기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됐으며, 2026년 3월 25일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멀러리 주교는 2021년부터 런던 주교직을 수행해 왔다. 캔터베리 대주교는 영국성공회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다.

멀러리 주교는 영국성공회 내에서 결혼과 성, 성 정체성 문제를 두고 수년간 진행된 협의 과정인 ‘사랑과 신앙 속에서의 삶’(Living in Love and Faith)을 이끈 인물이다. 이는 결국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승인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멀러리 주교는 이러한 변화가 교리 변경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그는 “이러한 기도문을 사용하는 예배는 결혼 예배가 아니며, 전적으로 자발적”이라며 “교회가 동성 결혼과 관계에 대해 성직자와 회중이 가진 서로 다른 관점을 계속 포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선출 소식에 대해 영국성공회복음주의협의회(CEEC)는 비교적 온건한 반응을 보였다. CEEC는 성경을 통해 “사라 멀러리 주교가 사도적 신앙을 지키고, 영국성공회가 역사적 교리와 규범에 재헌신하도록 촉구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CEEC는 또 “결혼과 성윤리에 대한 성경적이고 성공회적인 이해에서 벗어난 현재의 이탈이 중단되거나, 영국

성공회가 미래를 위한 성경적 확신을 확보할 방법을 찾게 되는 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며 “무엇보다 그녀가 영국성공회를 이끌어 우리의 공평한 세상에 변치 않는 복음의 좋은 소식을 새롭게 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보수 성향의 가프콘(Gafcon) 운동은 훨씬 강한 거부 반응을 보였다. 로랑 음반다 가프콘 의장은 멀러리 주교가 동성 축복을 지지한 것은 “서품 서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며 “회개할 것”을 촉구했다. 음반다 대주교는 가프콘 회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번 임명은 영국성공회가 이미 분열된 공동체를 더욱 갈라놓을 지도자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성공회 신자들을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성공회 공동체의 다수가 여성 서품이나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멀러리 주교가 ‘일치의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음반다 대주교는 “캔터베리 대주교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직책은 더 이상 성공회 신자들의 신뢰할 만한 지도자로 기능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멀러리 주교는 결혼과 성 도덕에 관한 비성경적이고 수정주의적인 가르침을 반복적으로 촉진해 왔다”며 “성공회 공동체의 리더십은 복음의 진리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의 권위를 지키는 이들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칼과 깃발이 아닌 십자가를 붙들 때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 터내셔널(CDI)은 짐 이튼의 기고글인 ‘폭력의 시대에 화평케 하는 자를 위한 절규’(A cry for peacemakers in a time of violence)를 1일 게재했다. 짐 이튼은 피스빌더스 테이블(Peace-Builders Table)의 설립자이자 CEO이며 컨버지 월드와이드(Converge Worldwide)의 다양성 공동 디렉터로 섬기고 있다.

그는 또한 세계복음연맹(WEA) 산하의 글로벌 네트워크인 화해와 평화 네트워크(PRN, Peace & Reconciliation Network)의 미국 공동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짐 이튼. ©linkedin.com

고 싶어 하는 본능, 잘못을 갚아주고 싶어 하는 충동과 싸워 왔다. 그러나 북아일랜드,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팔레스타인, 르완다, 그리고 미국의 역사가 보여주듯, 폭력으로 폭력을 맞서는 방식은 결코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그것은 단지 다음 폭력의 무대를 준비할 뿐이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사랑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증오는 너무 무거운 짐이기 때문입니다.” 간디 역시 이렇게 말했다. “적과 맞닥뜨릴 때마다, 사랑으로 그를 이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부르심은 분명하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마태복음 5:9)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인자(人子) 앞에 나아가 그 발 아래 앉아 배워야 한다. 우리의 궁극적 부르심은 깃발이나 정당이 아니라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우리의 상상은 같이 아니라 십자가다. 점점 더 위험한 시대 속에서 두려움과 불신이 높아질 때,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라는 단 하나의 부르심에 헌신해야 한다. 예수의 길은 ‘빨강과 파랑’, ‘좌와 우’라는 정치 구도 안에 neatly 들어맞지 않는다. 그것은 초월적이며, 복음의 평화에 뿌리를 둔 길이다. 그것은 신정정치를 향한 길이 아니라, 열린 손으로 예수의 길을 본받아 서로 다른 문화, 계층, 종교를 가진 이웃을 존중과 사랑으로 대하는 길이다.

이것은 두려운 시대이지만 동시에 기회의 순간이기도 하다. 지금은 더 작은 야망들을 버리고 예수의 나라를 향한 부르심에 다시 헌신할 때이다. 지금은 세계 교회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배워야 할 때이다. 지금은 정치가 아닌 예수의 나라에 뿌리내린 희망을 세상에 보여야 할 때이다. 그 희망은 치유와 화해, 그리고 평화를 불러오며,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라는 부르심이다.

최승연 기자

美 ‘학교에 성경 가져오는 날’ 약 200만 학생 참여

마이 크리스천 데일리(My Christian Daily)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2일(목) ‘학교에 성경 가져오는 날’(Bring Your Bible to School Day) 행사에 미 전역 50개주 5만 개 이상의 학교에서 참여했다. 이 행사는 학생들이 학교에 성경을 가져와 학우 및 교사들과 말씀을 나누고 복음과 신앙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도록 장려하는 취지로 시작됐다. 이를 주최하는 ‘포커스온더패밀리’(Focus on the Family)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약 130만 명이 참여했으며, 올해에는 교회와 학교들의 참여가 늘면서 그 규모가 1.5~2배로 커졌다.

또한 학생뿐 아니라 성인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어 실제 참석자는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행사의 목적은 단순히 성경을 책상에 놓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신앙을 자연스럽게 나누며 질문과 토론을 통해 복음을 접할 기회를 만드는 데 있다.

다. 포커스온더패밀리는 이를 위해 참여 학생과 교사들에게 대화 가이드,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변, 신학·변증 자료, 법적 참고 문서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사례로, 테네시의 한 초등학생 데이비드(David)는 성경을 책상 위에 뒀고, 이를 본 교사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읽어주면서 학급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의 루시(Lucy)는 학교 전 친구들에게 성경구절과 복음 이야기를 나누며 학교 생활 속에서 신앙을 공유했다.

주최측은 “학생들이 단순히 성경을 지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친구들과 교사에게 복음을 나누며 질문을 받고 신앙적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믿음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에게 존중과 사랑의 마음으로 신앙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신미셸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침아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광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KM) 오전 10:30 중·고등부(Youth) 오전 10:30
주일예배(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College) 오전 10:30
유년부(K-2) 오전 10:3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2:40
초등부(3-5) 오전 10: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요 내 길에 빛이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가게출)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예배(민물채움)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아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일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일교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오전예배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오영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경침례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이충환 담임목사

www.icccla.org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0:40
토요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침례기도회 오후 7:00
토요새벽예배 오전 7:00 E.lvk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오전 9:00,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금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조승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joeun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5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려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비초프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앉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각종 보험 취급**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최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교통사고 전문

배배는 숙면제거와
먹으면서 채증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원료 \$7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고기, 김치만두

참살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THE EPWORTH FIRE ENCOUNTER

Return to the Root. Rise with the Flame

뿌리로 돌아가, 사중복음의 불꽃(웨슬리의 불꽃)과 함께 일어납시다

2박 3일간의
영적 집중,
신학적 깊이, 그리고
소명 회복의 시간

2025. 10.22(수)-24(금)

주 제 : 웨슬리와 사중복음
등록 시작 : 10월 22일(수) 오후 12:00부터 현장 등록 첫날 강의가 있습니다.

장 소 : Epworth By The Sea
100 Arthur J. Moore Dr. St. Simons Island, GA 31522
☎ (912) 638-8688

대 상 : 모든 그리스도인 및 사중복음에 관심 있는 분
예비 등록기간 : 2025년 8월 30일(토)까지 신청자가 초과될 경우,
숙소 사정에 따라 지방회 안내 및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30명을 선정합니다.

참가자 구성 : 총 정원 : 30명
(교역자 : 20명, 평신도 : 10명) - 최종 참가자 발표일 : 2025년 9월 2일(화)

참 가 비 : 전액 무료 (교재 및 숙식 제공 / 단, 사전 신청료 \$100.00 필수)
수료식 시 예비 명목으로 전액 반환됩니다.
※ 중도 취소 시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허현호 박사 - 웨슬리 신학
영남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박사
대우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가톨릭대학교
안동대학교 행정학과

최인석 박사 - 사중복음
미국 웨슬리안대학교 신학박사
사립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박사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박사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박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부회장

©The Epworth Fire Encounter 포스터

미국 사중복음 연구소 주최, 웨슬리와 사중복음 세미나 열린다

미국사중복음연구소(이사장 신 태림 사모, 소장 류종길 목사)에서 22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조지아주 세인트 사이먼스 아일랜드 엠피워스에서 ‘웨워서 파이어 인카운터’ 세미나를 개최한다.

‘웨슬리와 사중복음’을 주제로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세미나는 모든 그리스도인 및 사중복음에 관심있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영적으로 집중하며 신학적 깊이, 그리고 소명 회복의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3개월 전에 정원 30명 등록 조기마감되는 등 미 전역에서 큰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총 36명이 최종 등록했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로 교재 및 숙식을 제공한다.

류종길 소장은 초대의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는 *The Epworth Fire Encounter* 집회에 함께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집회는 이미 3개

월 전 조기 마감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비하신 자리입니다. 총 36명의 귀한 동역자들이 한마음으로 모이게 된 것은 주께서 친히 계획하신 섭리를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모임에는 미주 총회장, 부총회장, 총무, 서기, 그리고 한국성결신문사 편집국장까지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집회가 아니라, 우리 교단과 더 나아가 세계 성결교회 복음의 미래를 향한 역사적 발견임이라 확신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기다림의 장소이자 성령 체험의 현장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서 시작되었듯이, 이번 *Epworth* 집회에서라도 동일한 역사가 재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각 심령 위에 부흥의 불길을 새롭게 붙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앞으로의 교회를 이끌어 갈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를 통해 요한 웨슬리, 디엘 무디, 이성봉 목사

와 같은 부흥의 인물들을 다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충만히 흘러넘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이번 집회가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결단과 헌신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주사중복음연구소는 본 집회를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의 현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The Epworth Fire Encounter*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여러분을 통해 시작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쁨으로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앤더슨 기자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25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K-Urban Builders
CSLB # 854389

견적
상담

LA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OC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강준민 칼럼

가장 어두운 골짜기가 가장 밝은 지혜를 낳습니다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골짜기는 어둡습니다. 깊은 골짜기일수록 어둡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장 어둡고 깊은 골짜기에서 가장 밝고 깊은 지혜가 탄생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산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정상은 높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상을 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 정상을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상을 섬김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상은 섬김을 의미합니다. 정상을 섬김의 기회로 삼는 생애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섬길 때 깊은 기쁨을 경험합니다. 깊은 보람을 느낍니다.

정상에 오르는 길은 험난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길은 숨이 찹니다. 때로는 정상에 오르기 위해 위험한 사다리를 사용할 때도 있고, 밧줄을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정상을 정복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에베레스트산과 같은 높은 정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혹독하게 춥고, 산소가 희박합니다. 그래서 오래 머물 수

가 없습니다. 정상은 머물기 위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 쉼기기 위해 오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정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언덕에 머물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낮은 언덕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두운 골짜기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다고 고백합니다(시 23:4). 그가 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둠의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은 곳이 바로 어둠의 골짜기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양면이 함께 존재합니다. 높은 산에는 깊은 골짜기가 함께 합니다. 인생에는 어둠과 빛이 함께 존재합니다. 슬픔과 기쁨이 함께 존재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어두운 골짜기는 우리가 좋아하는 골짜기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어두운 골짜기는 고난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상실의 골짜기, 질병의 골짜기, 그리고 눈물의 골짜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난 예찬론자가 결코 아닙니다. 저도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을 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고난은 우리가 원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생각지 못한 때에 우리를 찾아와 당황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침착한 마음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고난 속에는 감춰진 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골짜기 속에는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깊은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 가장 밝은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고통은 교훈을 낳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어

두운 골짜기에 신비로운 빛이 임합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빛, 지혜의 빛입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잘 통과한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보통 사람은 알지 못하는 깊은 깨달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은 깊이가 있습니다. 무게가 있습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압박한 꾀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간파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신비롭게도 밝은 지혜가 자라는 곳은 바로 어두운 골짜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골짜기에서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회개하는 과정을 거치며 영혼이 정화됩니다.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타인의 눈물과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자가 됩니다.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붙잡을 줄 알게 됩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둘째,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시 23:4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잔이 차고 넘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시 23:5하). 요셉도 어두운 구덩이에서, 억울하게 갇힌 감옥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셋째,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 은혜의 샘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골짜기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시 104:10).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시 84:6). 놀라운 고백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는 샘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른 비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높은 정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은혜의 샘을, 어두운 골짜기에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골짜기를 은혜의 골짜기로 바꾸어 주십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두운 골짜기는 마치 터널과 같습니다.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는 밝은 빛이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골짜기에서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힘이 들지만 감사하십시오. 그때 어두운 골짜기가 숨겨둔 밝은 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풍성한 은혜가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진유철 칼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귀한 침례식을 통해 하나님 자녀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세상에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마7:15)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노략질하는 이리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기 때문에 분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극 할 때처럼 검은 색 옷 입고 이상한 모습으로 오지 않고 광명한 천사처럼 오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는 속기가 쉽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응답하는구나,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후11:4, 14-15)

예수님은 열매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아는 것처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

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마7:16-18) 열매는 사람의 성품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의 8가지 열매도 성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갈5:22-23) 교회에서의 종교행위는 연극배우가 연기하듯 거짓으로도 가능하지만, 성품은 예수 믿어 거듭남으로 변화되어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듯이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앎은 종이 한 장이라도 벽에 붙어 있

으면 강한 존재가 됩니다. 콘크리트 벽에 붙어 있으면 종이 아니라 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약한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마귀가 공격했다가 박살이 날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요15:10) 나의 삶에 대적이 일어나고 고난이 생길수록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어린 아이는 갑자기 어둠이 덮치거나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부모의 손을 더 짊 잡고 부모에게 붙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고난과 대적이 생긴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손을 더 짊 붙잡고 붙어서 이 상황을 지나가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힘든 길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하고 크게 만드는 변화의 길이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롬!

2025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마크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 성 대 학 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SINCE 1977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커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교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900)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 음 대 학 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 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DM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8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I.aurahelio@gmail.com

전화 1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PEMF 와 Tera Hertz 테라헤르츠가 만나다! 테라 P-90
세계 최초의 최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30분의 기적!
무료체험하러 오세요!



자연요법, 대체 의학, 예방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 전문가들의 추천

우주인에게 사용되는 PEMF, 생명의 빛 테라헤르츠파로 생성된 올리라이프 테라P-90
PEMF(지구자기장) + THz(빛 파장) + Earthing (땅 에너지) 가 결합된 제품

- 1. PEMF 전자기 펄스를 발생, 발바닥에서 온 몸으로 열에너지 전달 혈액순환촉진에 도움
- 2. 테라헤르츠파가 피부에 침투하여 인체의 미세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도움
- 3. 땅에 어싱한 것처럼 전자를 유입하여 활성산소를 중화하는데 도움을 줌

PEMF란?

지구자기장으로 NASA에서 우주인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장기간 머무는 비행사들은 지구자기장의 영향권 밖에 있기 때문에 뼈와 근육의 손실이 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비행사들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비행사들은 90일간 PEMF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주에서 머무는 동안 근육손실과 뼈의 약화 등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PEMF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테라P-90의 의미도 최소한 90일간의 PEMF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테라 P-90을 30분 사용시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성과

- 2시간 운동 성과 (근육활성)
- 부황 20회 (혈액순환)
- 훈육 1시간
- 땀 10회 (체온상승)
- 마사지 30회
- 피부 스킨링 60회 (리프팅)

테라 P90의 효과

- 세포에너지 생성에 도움
- 통증과 염증에 도움
- 피로에 도움
-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에 도움
- 면역건강 보조
- 안티 에이징에 도움
- 신진대사에 도움
- 뇌건강과 인지능력 증가에 도움
- 시력향상에 도움
- 독소배출(림프)에 도움
- 우울증/스트레스에 도움
- 폐와 신장기능강화에 도움
- 수면장애에 도움
- 지방연소에 도움

FDA, SGS, OPMS, ISO 세계적으로 특허 및 승인 받은 제품 158개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 하나의 디바이스로 온가족이 함께!
테라헤르츠와 PEMF의 시너지, 최첨단 건강 혁신! 두 가지 혁신 기술의 만남으로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체험수기

“저는 한의사로서 다양한 치료법을 경험해왔습니다. 테라 P-90을 사용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를 느꼈습니다. 이 기기는 깊은 조직까지 침투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테라 P-90은 비침습적이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Y*** 한의사

“정형외과에서 테라 P-90을 도입한 이후,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과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전자기장이 깊은 조직에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며, 치료 효과를 빠르게 증진시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치료 후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테라 P-90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 J***** 정형외과 의사

“테라 P-90은 물리치료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제 환자들이 테라 P-90을 사용한 후, 통증이 줄어들고 운동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치료 세션에 테라 P-90을 포함시키는 것은 환자들의 재활 과정을 크게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 M** 물리치료사

“피부과에서 테라 P-90을 사용하여 염증성 피부 질환과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기장이 피부 깊숙이 작용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환자들의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치료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 도구로 테라 P-90을 추천합니다.” - L** 피부과 의사

grace.olylifeglobal.com 웹사이트 주문 후 2주 후 물건도착
문의 213-434-1170 무료체험 (오시기전 예약필수 월~목 : 오전 11시~오후 2시)

3055 Wilshire Blvd #480 ., LA, CA 90010

* 건강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건강과 비즈니스 기회를 원하시면 지금 연락주십시오.

구봉주 칼럼

친구



구 봉 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벗, 친구, “함께”라는 주제는 인간사회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창조론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in one nature 본질적으로는 하나”이시지만, “three persons 세 분”이신 “trinity 삼위일체”라는 자신의 본성을 닮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가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혼자는 외로워 보이는 반면, 함께 하는 모습은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입니다. 함께 하는 것 자체에는 어떤 힘이 있는 듯합니다.

오래 전 “친구”라는 영화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하는 우정과 일탈이 아름답게 그려졌으나, 사실은 친구 관계 속에서의 배신과 죽음, 즉 안타까운 비극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친구 관계에

희비가 존재하지만, 친구는 아름다운 추억이다”라는 짙막한 메시지를 던져 주었고, 영화를 관람한 많은 이들이 공감하였습니다.

저는 성격이 외향적이고, 사람을 좋아하는 편이라 어릴 때부터 친구가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까지만 해도 내향적 성격이라 친구들이 많지 않았던 형을 제 친구 그룹에 조인하게 하여 같이 놀 정도였습니다.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에는 모범생들과 친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등학교를 자의로 그만두면서, 다양한 부류의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 나이보다 열 살에서 십이여 스무 살이 많은 분들을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알고 지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20대 당시에는 그러한 다양한 친분과 친구 관계가 제게 큰 위로와 재미를 주었습니다. “친구인가? 가족인가?”라고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친구”라고 대답할 정도 친구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친구가 제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였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저는 그간 제가 친구들을 마음으로 의지하고 살았고, 그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IMF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학을 보낼 마음을

갖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제게는 친구에 관한 3가지 통찰이 생겼습니다. 첫번째 통찰은 “진정 나를 사랑하여, 마음까지 헤아려 주는 친구는 주님 한 분 뿐이다”라는 통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마음을 털어 놓고 고백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도움을 구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친구라”는 영광스러운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두번째 통찰은 “가족이야 말로 진정한 친구다”라는 통찰입니다. 한국에는 어릴적부터 친한 두명의 베스트 프렌드가 있습니다. 두 친구 모두 저를 무척 아껴줍니다. 친구들 중에 유일한 목회자라고 대접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면서, 괜히 제가 특하고 던진 신앙적 조언이 그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조심스럽고, 또 목회라는 특수한 공감대가 없어서, 자주 연락하기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두 친구 외에도 제게는 무척 가까이 지내는 목회자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게 가장 가까운 친구는 아내이며, 이제는 사회인과 대학생이 된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최근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끔 딸들에게 잔소리도 듣고, 모르는 걸 묻기도 하고, 아내에게 생각을 물어보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요.

그리고 친구에 관한 저의 마지막 통찰은 교회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진정한 영적 친구, 동역자라는 통찰입니다. 물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언니 오빠 형님 동생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직분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영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육신적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관계는 더 없이 친해질 수 있지만, 반드시 예의와 격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교회로 모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신앙과 삶을 나누는 가장 좋은 친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친구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기쁠 때 같이 웃어주고, 슬플 때 같이 울어주는 것이 친구이지 않습니까? 장례예배를 집례해보면, 결국 유명인이 아닌 다 음에야 조문객 대부분이 교인들입니다. 그들이 함께 울어줍니다. 그들이 챙겨 줍니다. 심지어 교회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께 울며 기도해줍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을 받는 일이 생기면, 다같이 내 일처럼 기뻐해줍니다. 시기 질투할 겨를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라는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족과의 끈끈한 관계, 교회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친밀하면서 영적인 관계를 다시 고민하고, 재정립하며, 돈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중기 칼럼

정상에서 구약성경의 능선 보기



민 중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원로목사

산길을 걷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작은 봉우리라도 정상에 오르는 성취감은 적지 않습니다. 봉우리에는 자신이 선 곳으로 물려드는 능선과 먼 전망이 좋습니다. 땀을 흘리면 몸도 더욱 가벼워집니다.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조금씩 깨달음이 커지면서 능선에 오르는 기분입니다. 복잡한 계곡과 심오한 영적 진리에 대한 것은 아직 연구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속을 달리는 동안, 구약성경의 큰 능선의 줄기는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을 살펴볼 때, 대체로 3가지 해석학적 능선은 신명기 사관(Deuteronomic History), 역대기 사관(Chronicler's History), 그리고 지혜 전통(The Wisdom Tradition)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전체 성경 66권 중, 구약은 39권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 각기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성격이 구별되는 다양한 책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약에는 법전이 있고 역사서가 있습니다. 시로 된 다양한 선지서가 16권이나 있고 또한 시가서와 지혜서도 있습니다. 이 다양한 책을 읽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구약 39권 중, 모세 5경이라고 부르는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만나게 됩니다. 모든 책이 다 중요하지만, 출애굽기, 레위기와 신명기는 언약의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시내산 언약”(출 10-24장)을 담고 있고, 레위기는 제사를 위해 부가된 책이며, 신명기는 광야 40년이 끝날 때는 새 세대를 위하여 제시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신명기를 포함한 모세 5경

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교과서입니다. 특히 이 책들은 국가를 세우기 위한 법전이자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 이후 여호수아에서 열왕기 상하에 이르기까지 신명기의 가르침과 역사관은 역사를 조망하는 관점이 되었습니다.

선지자 모세에 의하여 주어진 모세 5경과 이후 열왕기 상하에 이르는 신명기적 관점으로 재해석되던 역사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으로 끝났습니다. 멸망 이후, 왕과 선지자의 길항(拮抗) 관계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하여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여 다시 성전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삶과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역대기 상하와 에스라-느헤미야와 같은 책은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신앙의 관점, 역대기 사관을 가지도록 합니다. 이는 신명기의 선지자적 관점에서 물려나, 성전 중심의 제사장적 관점을 심화시킨 것입니다. 왕이 없는 상황에서 역대기적 관점을 가진 제사장들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예배하며, 소망의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을 멀리 바라

보았습니다.

신명기적 관점과 역대기적 관점이 말씀 중심이라면, 또 다른 구약의 능선이 바로 지혜 전통입니다. 신명기적 관점이 순종과 불순종을 말하는 선지자 중심의 전통이라면, 역대기적 관점은 회개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을 주도하는 제사장 중심의 전통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혜 전통은 유대와 이방을 초월하고, 우주적 하나님의 온 창조 세계를 망라하는 보편적 관점을 탐구합니다. 이 전통은 하나님을 지혜로운 창조주로 이해하고, 창조와 역사를 통하여 드러나는 심오한 지식과 비판적 지혜(잠언, 욥기, 전도서 등)를 추구하며, 중근동의 타국에서도 수집합니다(잠 31:1-9).

신명기 사관이 반듯함의 정격(正格)을 가르치고, 역대기 사관은 더욱 영광스런 예배와 소망의 높음, 곧 고격(高格)을 가르친다면, 지혜 전통은 삶의 모순 속에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구하는 파격(破格)을 가르칩니다. 산에 올라서는 일은 어느 능선이나 쉽지 않지만, 어느 길이라도 정상에 오를수록 시야가 열리며 점점 더 아름다워집니다.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HOLLYWOOD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가주 삼성 통운(주)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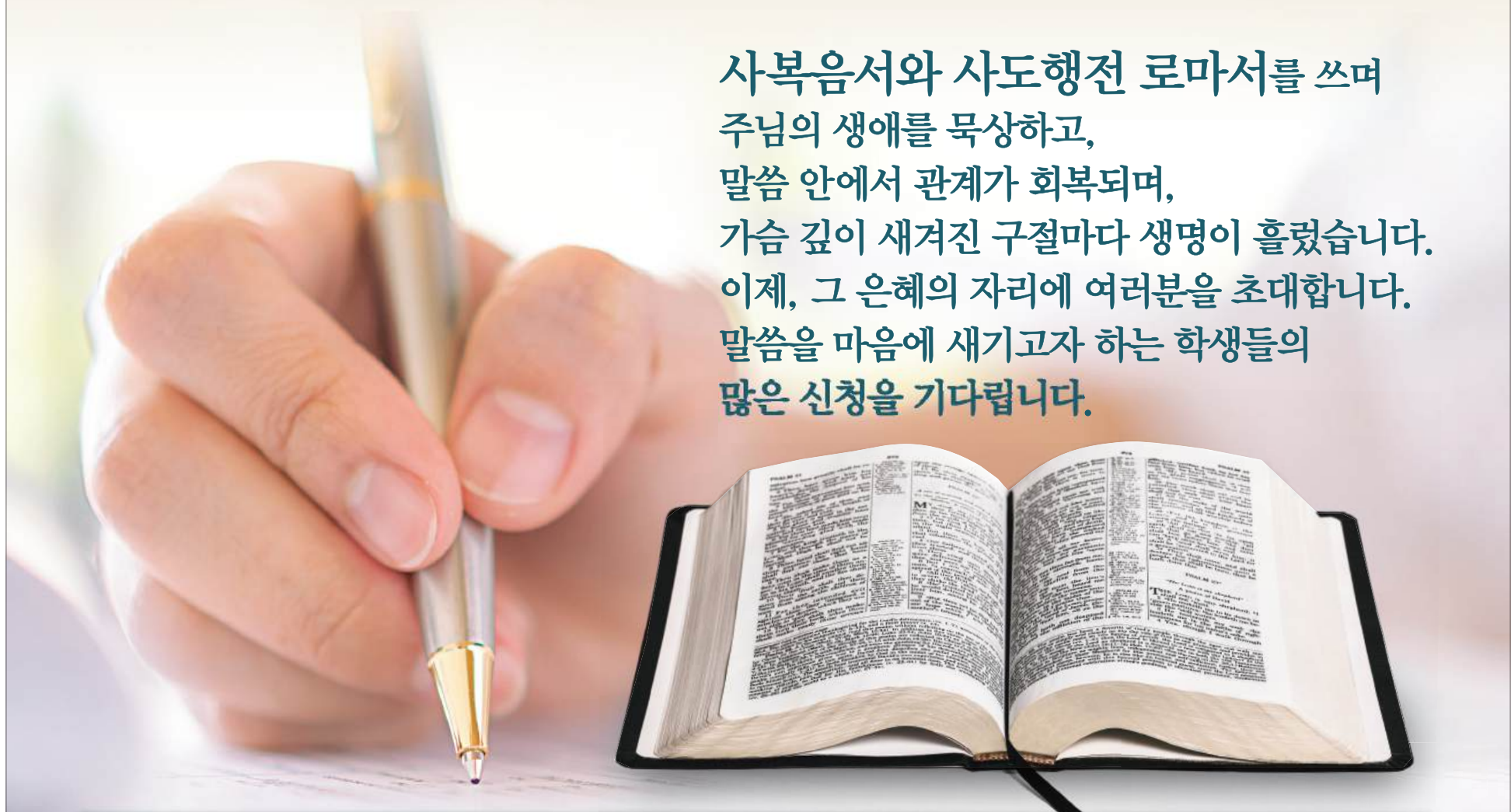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성경필사 제3기 장학생 모집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로마서를 쓰며
주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며,
가슴 깊이 새겨진 구절마다 생명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을 기다립니다.

지난 1기와 2기 장학생들이 고백한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 “필사하는 동안 제 삶이 변했어요.”
-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제게 열려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서서히, 저는 제가 붙들고 있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 “나는 성경 필사를 통해 희망을 품게 되었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주님과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 프로그램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 “하나님께서 성경과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 아는 것은 정말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성경 필사 본문 (한글, 영문 중 선택 가능)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 장 학 금** 1인당 **\$1,000** (선정인원 30명)
- 응모대상** 현재 재학중인 고등학생, 대학생(나이 만14세~23세)
- 신청방법**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신청마감** 2025년 11월 8일(토)까지
- 장학생 선정발표** 2025년 11월 15일(토) 개별통보
- 필사노트 제공 및 교육** 2025년 11월 22일(토) 오전 10시
- 장 소** 세계등대교회(담임 김도일 목사 1479 E. Broadway, Glendale, CA 91205)
- 장학금 전달식** 2026년 7월 중(장학생들에게 날짜와 장소는 추후에 알려 드림)
- 문 의** 기독교일보 213-434-1170 chdailyreporter@gmail.com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등록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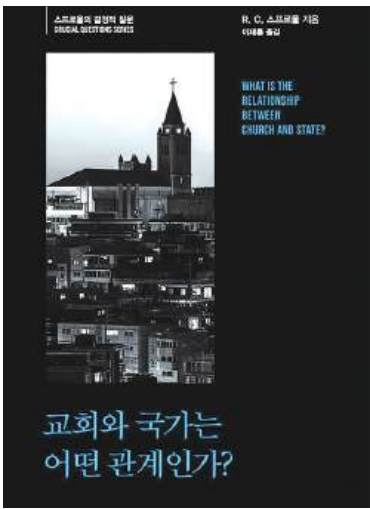
기독교일보



주최: 기독교일보(Christianity Daily) 주관: 크리스천 다음세대 연구소(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주권은 국민에게, 그 국민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교회와 국가, 이제 제 자리에서 소명을 다하길 바라며



교회와 국가는 어떤 관계인가?

R. C. 스프로울 | 이제루 역
생명의말씀사 | 88쪽
10,000원

요즘 우리의 교회들은
정치적 위기와
극단적 양분화로
요동치는 한국 사회의
흐름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랑의 한복판에
있는 듯하다

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정치
참여에 대한 목소리도,
그 양상도 극단으로
나뉘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세속 국가의 국민’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잠시 숨을 돌리고
곰곰 생각하고 태도를
고를 때다

R. C. 스프로울(1939-2017)은 ‘결정적 질문 시리즈(Crucial Questions Series)’를 통해 47가지 질문에 답한다. 짧은 소책자로 구성된 이 시리즈는 ‘나는 구원을 잃을 수 있는가?’, ‘고통의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분노는 언제나 죄가 되는가?’ 등 다채로운 질문에 성경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아마존에서 킨들 버전으로 이 시리즈의 많은 책들이 무료로 제공되는데, 생명의말씀사에서 ‘리딕스 북스’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4권 정도 번역된 적이 있다(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2012). 이번에 출간된 <교회와 국가는 어떤 관계인가(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Church and State)?>는 2019년 리고니아 미니스트리에서 출간됐고,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규정하는 간략하면서도 분명한 책이다. 저자 스프로울은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로서 성경의 무오성을 비롯한 개혁주의 신학의 정수를 변증하는 일에 평생 헌신했다. 리포메이션 바이블 칼리지 초대 총장이자 리고니아 미니스트리 대표로서 기독교 진리를 널리 전파하는 일에 전념한 탁월한 교사이자 저자, 강연가였다. 셰퍼드 콘퍼런스에서 존 맥아더 목사와 패럴 토의를 하던 스프로울을 지켜보면서, 그가 참으로 성경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에 경외를 느끼며 압도되어 청중에게 전달한다는 인상을 깊이 받았다. <교회와 국가는 어떤 관계인가?>는 그래서 단순히 저자 개인의 의견이나 분별을 담았던 책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교회와 국가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 핵심적인 답을 정리한 책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 진술서에서 서명하면서 많이 고민했다고 밝힌 스프로울은 복잡하고 다양한 정치적·국가적 사안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가 반드시 취해야 하는 자세와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

뜻이 있다고 밝힌다. 오늘날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양극단으로 치우친 것처럼 보인다. 자칭 목사라는 사람이 정치적 운동에 앞장서는 경우도 있고, 교단의 성경적 분별에 따라 징계를 내린 학생을 국가가 다시 받아줄 것을 강요하기도 한다. 반면 정부 정책이 명백히 성경에 반하는 것임에도 교회는 아무 소리 말고 복음만 전하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것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따르는 길이라고 철석같이 믿는다. 스프로울은 먼저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사실을 로마서 13장을 통해 입증한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권력자가 정말 악하고 부패하기로 유명했던 사실을 생각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말씀이다. 하지만 동시에 스프로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사용해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권세자가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다.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하나님 뜻을 거스른 일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만 행할 권세는 메시아뿐이다. 저자는 또한 시민으로서 성경이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존중과 순종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하는 모든 것을 지지하라는 말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우셨다면,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거나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금지할 때, 최상위 권세자인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그분의 사역자인 국가에 불복종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국가와 교회가 결탁한 경우, 결과가 늘 좋지 않았다. 중세시대와 종교개혁 시대 모두 교회는 교회의 기준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없고, 국가는 특정 종교를 편애하며 시민 모두를 공평하게 다스릴 수 없었다. 그러므로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따라 선을 권장하고 악을 공권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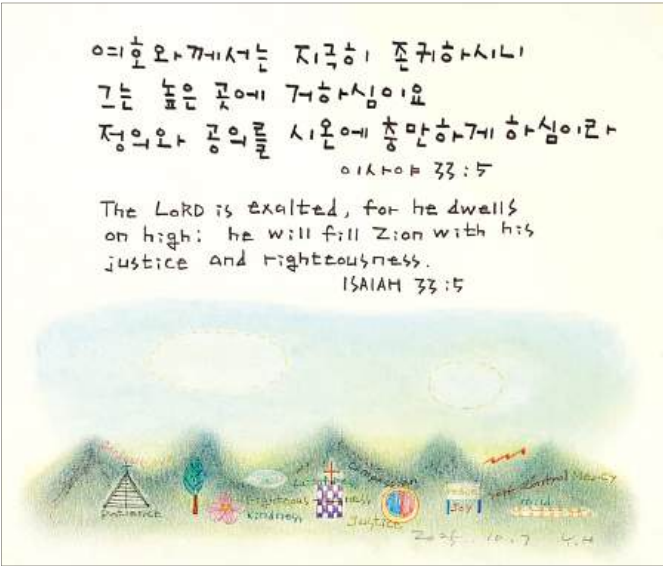
▲국가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던 성도들(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에스더기도운동

로 억제하는 기능을 해야 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밝히신 선과 악이 무엇인지 국가에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다. 만일 교회가 국가에 대항하여 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불복종의 방식이 아니라 국가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것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선에서 해야 한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말이 유행처럼 사용되면서,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역대상 29:11)”는 고백을 상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교회는 하늘나라 시민이면서도 이 땅

의 시민이다. 이중 국적을 가진 존재이지만, 이 두 나라를 모두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만, 그 국민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국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가져야 한다. 짧지만 핵심적인 답으로 우리에게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가르쳐주는 스프로울의 이 책을 통해, 양극단으로 치우친 교회의 입장이 핵심에 있어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용수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투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2025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2일 ~ 12월 5일까지

본교 지원시 특전

1) RPCA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B.Th) 목회학석사과정(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기능(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서성록, 한 점의 그림] 천병근과 김기창 등

해방 후 크리스천 미술가들의 작품 활동이 두드러졌던 이유

1. 일제 가혹한 탄압으로 활동 못해
2. 월남 미술인들 이주로 활기 생겨
3. 제헌 국회부터 신앙의 자유 공인

월한국 크리스천 미술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은 해방을 전후로 해서이며, 더 자세히는 6.25 전쟁을 전후해 크리스천 작가들이 급증하고 작품 발표도 활발해지면서다.

해방 이후 기독교의 역사를 살핀 김양선 목사의 『한국기독교 해방 십년사(대한예수교 장로회, 1956)』 중에는 특별히 기독교 문화 사업 부문을 따로 기술하고 있다. 기독교 방송에서부터 기독교 박물관, 기독교 음악, 기독교 문화, 기독교 출판, 기독교 문화단체, 그리고 기독교 미술을 다루고 있다.

한국의 종교미술로는 6.25 사변까지 약 25년간 중앙기독교청년회관 회관에 걸려 있던 이당 김은호 화백의 ‘예수 승천도’가 이 땅의 기독교미술을 웅변했다고 운을 뗀 다음, “해방과 함께 우리 교회는 우수한 기독교미술을 탄생시킨 천재화가 천병근, 김기창 양 화백을 가졌다”며 천병근의 〈기독 의용사〉(1950), 김기창의 〈예수의 생애〉(1952-1953)를 소개했다.

이어 이연호 목사의 “해방 10년의 회상”(『기독교계』, 1957. 8월호)에서도 당시 움직임을 엿볼 수 있다. 이연호 목사는 해방 후 크리스천 미술 활동에 대해 김은호를 언급한 다음 천병근·김기창의 대표작을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 언급했다. 김기창은 전쟁 기간 중 〈예수 일대기〉를 완성했고, 천병근의 〈기독 의용사〉, 〈세례〉(1951), 〈어린이양〉(1951), 〈삶〉(1953) 등을 발표하여 호평을 받았다고 했다.

덧붙여 장운상이 예수 탄생 장면을 성탄 카드로 제작한 점, 이연호가 1955년 동방화랑에서 개인전을 가진 것과 1950년 이후 『타임』과 그밖의 외국잡지에서 그의 작품을 보도한 점, 문자화가 이광혁이 화면에 성경

구절을 한글로 일일이 새겨 형태화한 〈마태복음〉(1952), 〈요한복음〉(1952), 〈누가복음〉(1956), 〈기독전신상〉(1957) 등을 소개했다. 이연호는 흥미롭게 이들을 유럽의 화가들과 비교하기도 했는데, 김기창을 들라크루아, 장윤상을 루벤스, 천병근을 마네시에, 이광혁을 프라 안젤리코와 같다고 했다.

해방 후 교회에서도 교육용으로 시각예술을 적극 활용했다. 이연호는 성화연구사를 초창기 기독교미술에 공헌한 단체로 들면서 “인쇄술이 졸렬한 한국에서 여러 악조건과 싸우며 금일에 이르”렀다고 기록했다. 성화 제작사에서 주최한 “시각전도를 위한 화극(畫劇) 모임이 작년에 있었으나 응모 9점 중 4점이 당선되었다”고 소개했다.

여기서 ‘화극’이란 딱딱한 종이에 연속적으로 그린 그림을 상자 모양의 틀 속에 넣어 순서대로 한 장씩 어린이들에게 보이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구연놀이를 말한다. 이 동화그림 놀이는 ‘기미시바이(かみしばい, 종이연극, 조희연극)’로 불리며 일제 말 전국적으로 유행했다. 전세(戰勢)가 기울자 다급해진 일본 총독부는 국민정신 총동원의 일환으로 ‘기미시바이’를 내세워 전시 선전수단에 사용했다.

국내에는 해방이 되어서도 일제 말기 전시 체제적 문화가 남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기미시바이’는 관동대지진(1923)과 쇼와 공황(1927)으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생계를 이여가기 위해 엽장수(飮売り)가 어린이의 관심을 끄는 오락용으로 발명됐고, 그 후 교육적인 목적이나 신앙 전도를 위해 제작된 ‘교육 기미시바이’로 발전됐다.

이연호가 ‘시각전도를 위한 화극’을 언급하면서 일본의 작가 히라사와 사다하루(平澤定治)를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이연호가 한국 작가의 화극을 말할 때, 일본의 전도용 ‘교육 기미시바이’를 염두에 두고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출판작 수준은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 같다. 그는 “작품의 수준에 있어서 한국은 아직도 전도요원의 감이 있다”고 하여 응모된 ‘화극’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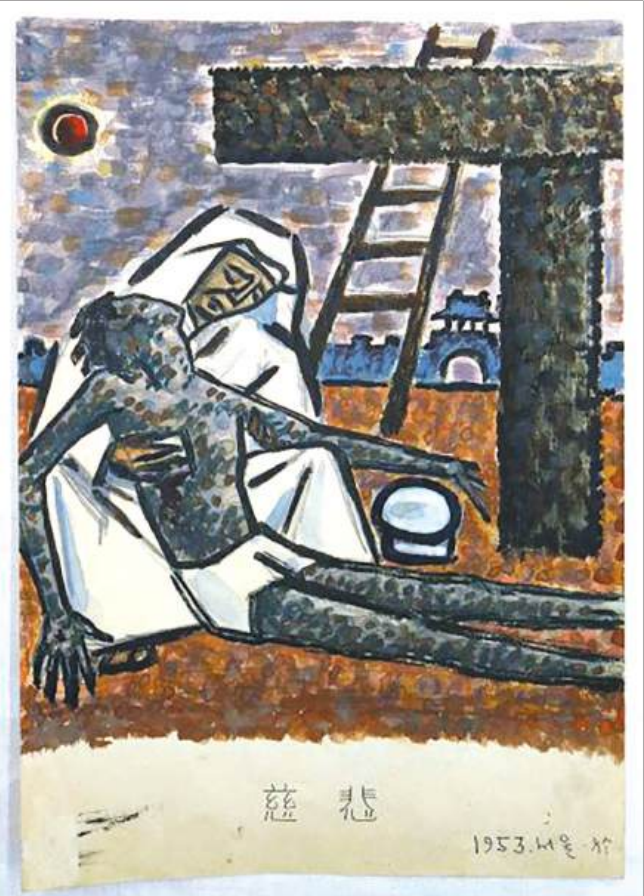
김양선, 이연호 목사가 기술한 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크리스천 작가들의 활발한 움직임은 일제 강점기에는 보기 힘들었던 일이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 작가들의 활동을 촉진시킨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첫째, 일제 때는 기독교에 대한 가혹한 탄압에 작가들이 힘을 쓸 수 없었다. 일제 말기에는 한국교회 천황화 실현 발표, 예배 전 동방요배, 교인 집마다 작은 신사 설치, 사상범 구금령, 일본적 기독교로 바꿀 것 요구, 교회 전쟁물자 헌납, 교회 종 공출, 서양 선교사 추방, 지도급 목사의 신사건축 등 원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다.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은 전국적 규모로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한국교회 해산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에, 크리스천의 사회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소수 크리스천 예술가들도 이에 실망해 소극적으로 활동하거나 조용히 지내야 했다. 그러나 일본이 패망하고 물러나자, 비로소 크리스천 작가들이 기지개를 펴며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월남 미술인들의 이주이다. 일본의 패망과 함께 북한 지역에 진을 친 소련군과 그들의 공산화 전략은 한국교회사에 참담한 비극을 안겨줬다. 공산화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의 희생은 엄청났고, 전쟁 직전에는 정점을 찍었다. 신자들에게 대한 감시와 세뇌 공작, 교회 재산의 몰수, 성직자 및 지도자들에 대한 심문과 납치, 학살, 살해 등 대대적인 박해가 자행되었다(백상현, “북한정권의 교회탄압”, 국민일보, 2015. 8. 19).

핍박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던 크리스천들은 6.25 전쟁 기간 중 월남했다. 이 가운데는 박수근, 홍종명, 김학수, 윤중식, 황용열, 황유열, 박고석, 신영현, 정규, 이정수 등 미술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강한 교세를 자랑했던 북한 지역은 신자 규모에 있어서도 남한보다 우월했기 때문에, 월남 미술인 가운데는 본인이 크리스천이거나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었다. 월남 미술인들은 남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뿐 아니라, 호방하고 토속적인 조형 특성으로 미술계를 한층 풍부하게 만들었다.



▲천병근, 자비, 26,2x18,9cm, 종이에 수채, 1953년. ©사진 천동욱 제공

셋째, ‘신앙의 자유’가 공인된 것이다. 제헌국회가 마련한 헌법 초안 제12조는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헌법 제20조 제1항 참조)”고 되어 있다. 헌법 초안에 규정된 종교자유 조항은 각 기관과 미군정의 종교자유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헌법기초위원회가 작성한 이 헌법 초안은 제헌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대한민국 헌법’으로 확정되었다(방성주, 양준석, “1948년 종교의 자유 조항 제정의 정치사”, 『한국정치학회보』 53집 5호, 2019, 118쪽).

좌익 계열 연합체 민주주의 민족전선 역시 헌법 시안에 종교자유 조항을 규정했으나, ‘국가질서와 인민의 이익에 배반되지 않는 범위’라는 단서조건을 달았다(같은 논문, 113쪽). 공동의장 박헌영은 “종교가 과학의 진리와 배치된다”는 인식을 갖는 철저한 공산주의자였는데, 그가 말한 ‘인민’은 자본주의 착취계급인 부르주아와 대척지점에 놓인 노동자, 농민, 소시민을 지칭한다.

다시 말해 ‘인민의 이익을 배반’하지 않는, 즉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 투쟁에 걸림돌이 되는 종교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독소조항을 넣었다. 그러나 이 안은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타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사라지고 말았다.

건국 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 ‘신앙의 자유’를 명문화한 것은 국민의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고 사회 각 방면에 크리스천의 사회적 참여를 가져온 것처럼, 예술 분야에서도 크리스천들이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우호적 환경을 마련했던 것이다.

서성록 명예교수(안동대 미술학과)



▲김기창, 최후의 만찬. ©서울미술관

CROCKETT HONEY

Southwest's leading provider of quality
Desert Honey
since 1945!

We offer a wide variety of 100% pure and natural Arizona honey.

자연의 정직함, 건강을 선물하세요

미국 프리미엄 허니 브랜드—

CROCKETT HONEY

아리조나 사막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세 가지 특별한 꿀이 건강과 품격을 전합니다.
한국 방문 시,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꿀·꽃가루·로열젤리의 황금 조합

자연이 준 면역력, 에너지, 항산화 효과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Honey 3lbs
\$25+tax

1 **Desert Blossom Mesquite Honey**
사막의 야생화와 메스키트 꽃에서 채밀된 부드럽고 향기로운 맛!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가득한 천연 꿀

Bee Pollen
\$45+tax

2 **Crockett Honey (Original)**
가장 순수한 꿀의 기본! 건강한 단맛과 자연 그대로의 영양을 담은 전통의 맛! 차, 토스트, 요리에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

Royal Jelly
\$25+tax

3 **Crockett Honey with Royal Jelly**
꿀 속의 황제, 로열젤리를 더한 프리미엄 건강식품!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탁월한 영양 강화 꿀! 특별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로 안성맞춤

(Pick up Only)
전화 예약주문 **213-434-1170** prozusa1@gmail.com Pick up 장소: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제2기

We Bridge

교회 모집

We Bridge 사역은?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가
아직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미자립교회를 섬기며
함께 세워가는 사역

예배의 회복과
건강한 교회 성장을
돕는 사역

목회자 자기 개발을
돕는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 제공

We Bridge교회 **선정기준**

1. 교회 설립 10년 미만의 교회
2. 자체 건물이 없고 예배 장소를 빌려 예배 드리는 교회
3. 건강한 교단의 교회
4. 담임 목사 나이가 59세 미만, 담임 목사가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교회
5. 예배인원이 성인 40명 이하의 교회

선정된 교회에 주어지는 **혜택**

3년간 매월 \$500 지원 (2026년 1월~2028년 12월)

- **신청기간** : 2025년 10월 25일(토)까지
- **신청방법** :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선정발표** : 2025년 11월 1일까지 개별통지
- **문 의** : 기독교일보 213-434-1170
chdailya@gmail.com



“교회가 교회를 세웁니다” We Bridge 사역 1기 감사 및 2기 출범예배



- 날짜** : 2025년 11월 11일(화) 오전 10시 ~1시
- 장소** : 충현선교교회(담임 국윤권 목사)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